삼나소식

133호
11월 15일, 2026년

SAMNA NEWSLETTER
나성교회에서 세상 (삼라, 森羅)에 전하는 복음의 소식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4~22절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이번주 은혜의 말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 거듭난 것에만 안주하지 않고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며, 내 육신의 생각과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과 깊이 결합되어 진액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단순히 과거 소아시아의 한 교회를 넘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모든 교회의 영적 상태를 예언적으로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엄히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차다'는 것은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전형적인 불신 상태, 즉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기 전 예수를 핍박하던 상태를 뜻합니다. 반대로 '덥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인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아는 외식자이자, 성경을 지식으로는 잘 알면서도 실제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는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놓은 안내서입니다. 설명서를 아무리 자세히 연구하고 교리에 대한 지식을 쌓아도, 나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나를 포기해야 하는 '예수 영접'을 원치 않는다면 그것은 무익합니다. 마치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 성경에 박식했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정확히 알려주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베들레헴으로 예수를 경배하러 가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지식만 제공하고 정작 자신은 움직이지 않아 수많은 어린아이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듯, 실체 없는 지식은 스스로를 부자라 착각하게 만들 뿐 영적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박해도 없었기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겉으로 죄 안 짓고 도덕적인 모양새만 갖추면 된다고 여기며 영적 빈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것은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끝장나는 그림자에 불과하며,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새 피조물로 만드신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영원한 참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믿는 삶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상 지식과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 보시기에는 정반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은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진단하십니다. 말씀의 실체가 없기에 영 혼 몸이 곤고하고, 그리스도의 영적 풍요가 없어 가난하며, 영적 통찰력이 없어 눈이 멀었고, 의의 옷을 입지 못해 수치스럽게 벌거벗어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부자라 여겼을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권하십니다.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합니다. 금은 하나님의 본성과 신성한 속성을 의미하며, 지식적 믿음이 아닌 실제 삶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흰 옷'을 사 입어야 합니다. 이는 주관적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혼의 생각대로 살며 불평과 욕설을 쏟아내는 수치를 벗고, 삶과 인격을 통해 오직 예수를 살아서 표현해야 합니다.

셋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합니다. 이는 기름 바르시는 성령을 가리키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영적 눈이 열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경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고 먹어지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2천 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휘황찬란한 건물, 어마어마한 재산, 수십만 명의 인원, 거대한 구제 사업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속에서 교회의 본질은 급격히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최고의 신학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삶의 현장에서 실패와 고난을 겪으며 예수를 배워가는 삶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인격'이 사람 안에 들어와 그 생명을 표현해 내는 모임이 바로 산 교회입니다.

거듭난 것에만 안주하지 않고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며, 내 육신의 생각과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과 깊이 결합되어 진액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볼 때, 나와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요일 2:27)

전체 설교 영상은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뒷면에서 영어번역본과 교회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nglish Translation

Overcoming a Lukewarm Faith

Passage: Revelation 3:14–22(ESV)
Pastor: Dong Suk Chung
This QR code is for the full sermon

Today's passage is not just about what Jesus Christ said to a church in Laodicea from long ago, but is a message for all of us about the spiritual condition of all the churches today. Christ sternly warns the Laodicean church, saying that because it is lukewarm, and neither hot nor cold, He will spit it out of His mouth.

Here, "cold" describes a person who has not yet understood the gospel, like the apostle Paul before he met Jesus on the road to Damascus. "Hot" describes a person who has received the gospel and lives an active life of faith in Jesus Christ. But the problem lies in being "lukewarm". Lukewarm people are hypocrites who think they have matured spiritually when they have not, and people who know the Bible well yet have never truly believed in and received Jesus.

The Bible is a guide that points to Jesus Christ. A person can fill their mind with the Bible for years and still keep Jesus out of their life, because they rely on their own efforts to find the answer by gathering biblical knowledge. They treasure that knowledge instead of Jesus, so they search the Bible and never find Him. As Jesus said to the religious teachers of His day, "You search the Scriptures because you think that in them you have eternal life…yet you refuse to come to me that you may have life."

The people in the Laodicean church thought they were doing well. They had wealth, comfort, and a good reputation, and they believed it was enough to avoid outward sin and look moral. But Jesus told them the truth: they were poor, blind, and naked, and they did not even know it. Poor because they lacked the spiritual riches of Christ. Blind because they lacked spiritual insight. And naked because they were not clothed in the righteousness of Christ.

For this reason, the Lord tells them to buy three things from Him. The first is "gold refined by fire". In the Bible, gold stands for God's own nature. Jesus offers us a share in who He is, but the price is faith, not money. The apostle Paul counted everything else as loss compared to knowing Christ. Similarly, as our faith grows, our worries will lose their grip. We cannot hold tightly to worry and ask Jesus for help at the same time, so He tells us to let go. He already carried those problems to the cross.

The second is "white garments". This means being clothed with the righteousness of Christ, which covers our shame. Being saved means more than being forgiven. Jesus wants to live His life through us. What comes out of our mouths, our habits, and our attitudes should slowly change. Someone who used to pour out curses or complaints may find that the words no longer come. That is Christ showing Himself through a person.

The third is "salve" or medicine for our blind eyes. This is the Holy Spirit, who heals our sight so we can see who Jesus is and what He has done for us. When He comes into a person's life, the Bible begins to make sense and faith begins to grow. The Bible becomes more than something to study. It becomes spiritual food that feeds us. Our churches do not need more information. They need the Spirit.

Many churches today have beautiful buildings, enormous wealth, thousands of members, and strong outreach programs. But a church can look successful and still leave Jesus standing outside the door. It is easy to fill the church calendar and go through the motions of church life without truly letting God change us. The church is not meant to be an organization. It is a living body joined together by the blood of Jesus, with every member sharing and expressing the same life in Christ through the Holy Spirit.

We are called to keep maturing spiritually, nailing our fleshly thoughts and worries to the cross and living as the new creations we are in Christ. When we look not at our problems but at Christ, we find a peace and joy the world cannot give. When we hear the Lord standing outside the door and knocking, we must open the door, and eat and drink with Him. Then we will overcome and receive the blessing of sitting with Him on His throne.

나성교회
Nasung Church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청소년부		
유치부	오전 11시 10분	유치부실
유년부	오전 11시 10분	Seeds Room

교회 연락처

562 - 690 - 7979

www.nasungchurch.org
redeemerheights.com (EM)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information@nasungchurch.org

samnanewsletter@gmail.com
(삼나소식 이메일)